

“공정한 거래 투명한 경영... 사회적 책임 다하는 건설 문화로”

— ‘2014 건설업 윤리경영대상’ 수상, 협력업체에 기술 개발비 지원하며相生 도모 —

지난달 7일 거행된 ‘2014 건설업 윤리경영대상’ 시상식에서 회상건설(주)은 치열한 경합을 뚫고 중견 기업 부문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기업 부문의 대우조선해양건설과 함께 지난 한 해 윤리경영을 가장 모범적으로 실천한 건설기업으로 꼽힌 것이다. 윤리경영대상은 대한건설협회가 주최하고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등이 후원하는, 권위 있는 상으로 2011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회상건설은 건설경기 침체로 어음 기성 수령이 느는 현실에서도 하도급 대금을 100%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협력업체와의 신뢰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공정거래자율준수제도 도입, 윤리경영제도의 도입과 선포, 윤리경영 전담 부서 설치 등을 통해 윤리경영을 기업 문화로 정착시킴으로써 업계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아왔다. 이경범 대표는 “창립 이래 ‘기본에 충실하자’는 사훈을 바탕으로 윤리를 기업 문화로 구축하고 있다”면서 “이번 수상을 계기로 더욱 더 투명하고 공정한 건설 문화를 만들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윤리경영의 선두 주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19일 이경범 대표를 만나 윤리경영에 대한 철학과 경영 시스템을 들어보았다. (편집자 주)



이경범 회상건설(주) 대표이사

“아직은 이러한 상이 세간에 회자되고 칭송되지만 앞으로는 건설업체 모두가 받을 수 있는 상이 되어 수상이 의미가 없는 그런 날이 왔으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2014 윤리경영대상'에서 치열한 경합을 뚫고 중견기업 부문 '대상'의 영예를 안은 데 대해 축하드립니다. 이번 윤리경영대상 수상에 대한 소감과 의미에 대해 말씀하여 주십시오.

윤리경영 분야에서 우리 회사보다 더 좋은 회사들이 많을 텐데도 부족한 우리 회사가 영예스러운 상을 받게 되어 잘하는 업체 분들과 오히려 송구한 마음입니다. 앞으로 더 잘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경기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희상(喜想)이라는 회사의 이름처럼 모든 직원들이 기쁘고 깨끗한 마음으로 최상의 구조물을 제공하여 발주처 등 고객에게 만족을 안겨주었기에 이런 큰 상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직원들과 우리 회사의 일을 제 일처럼 성실하게 수행해준 협력업체 모두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한편으로는 아직은 이러한 상이 세간에 회자되고 칭송되지만 앞으로는 건설업체 모두가 받을 수 있는 상이 되어 수상이 의미가 없는 그런 날이 왔으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희상건설은 상생 협력 및 동반 성장 정책 이행, 그리고 산업 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모범적인 사례를 보여 온 중견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대상 수상도 그런 점을 높이 평가받은 데 기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상건설은 그동안 어떠한 윤리경영 활동을 전개해 오셨는지요?

건설업은 특성상 다른 업종보다 하도급 비율이 높아 우선 하도급 과정이 투명해야 한다고 판단해서 이른바 상생이나 동반 성장의 개념이 화두로 대두되기 전부터 적정하고 합리적인 발주, 입찰, 계약, 기성금 지급, 정산을 하여 상호 윈윈하는 체제를 확립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현재는 100% 현금 지급 및 조기 지급, 기술 개발비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2010년 이후 발주처 기성의 성격과는 무관하게 현금 기성 지급을 원칙으로 준수하고 있으며, 발주처로부터 기성을 수령한 후에는 반드시 14일 이내에 협력업체에게 지급함으로써 자금 압박에 의한 품질 불량 등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장 운영 성과가 우수한 협력업체들에게는 하도급 금액과 별도로 2013년부터 1년에 약 2,000만원 규모의 기자재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2012년부터는 한 해 3개 협력업체에 평균 3,000만원 이상의 개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술 개발비의 지원이 야말로 협력업체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갑-을의 하도급 관계를 지양하고자 전자계약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불필요한 왕래를 줄여 접대나 향응을 근절하는 한편, 인지세를 절감하는 방편이 되기도 합니다. 공정하고 깨끗한 거래 관계는 이러한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3년 윤리경영제도를 도입한 후에는 '명절 선물

“예의와 양심을 가진 기술자를 양성하고 협력업체들이 양심껏 일을 해주는, 즉 시켜서가 아닌 주종 관계가 아닌 당해 공종에서는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일을 한다는 자부심을 갖도록 하여 해당 작업을 한다면 저절로 윤리경영 문화는 정착될 것입니다.”

안 주고 안 받기' 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절시 회사 관련 업체들에게 서한으로 선물을 보내지 말아달라고 요청했지만, 처음에는 그동안의 관행이 있어 보내 주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물을 모아 근처 복지시설에 기부하고 관련 사진을 찍어 보냈더니 이후에는 '명절 선물 안 주고 안 받기' 가 정말 실현되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윤리경영은 무엇보다 기업 CEO의 의지와 철학이 성패를 기능할 정도로 중요한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윤리경영에 대한 대표님의 의지와 철학, 그리고 윤리경영 문화 정착을 위한 비전이 궁금합니다.

저부터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을 해야 직원들도 따라오고, 협력업체들도 동참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생과 동반의 의미는 더치페이의 의미와 상통한다고 봅니다. 예의와 양심을 가진 기술자를 양성하고 협력업체들이 양심껏 일을 해주는, 즉 시켜서가 아닌 주종 관계가 아닌 당해 공종에서는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일을 한다는 자부심을 갖도록 하여 해당 작업을 한다면 저절로 윤리경영 문화는 정착될 것입니다. 이것은 책임 시공, 안전 시공, 품질 시공과도 직결되어 건설업의 부실 시공 예방과도 직결되는 기본이라 생각합니다.

창립 이래 우리 회사는 '기본에 충실하자' 는 사훈을 바탕으로 윤리를 기업 문화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상을 계기로 더욱 더 투명하고 공정한 건설 문화를 만들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윤리경영의 선두 주자가 되겠습니다.

건설산업에 윤리경영 문화가 정착되면 어떠한 효과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보시는지요?

바로 위에서 말씀드린 책임, 품질, 안전 시공으로 나타나 불신의 건설 문화가 신뢰와 신용이 확보되고 책임지는 문화로 바뀌어 사회적 불안 요소가 제거되고 지속 성장의 발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 속담에 "너의 장점이 알려지길 원하면 남의 공적을 인정하라" 는 말이 있습니다.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상호간의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결과물도 원활하다는 뜻입니다.

특히, 건설은 그 밑바탕에 남을 위한 마음이 있어야 하는 산업입니다. 발주처, 설계, 시공, 감리 등이 상호 신뢰 속에서 일을 하게 되면 부패 문화가 사라질 뿐만 아니라 건설 시공도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윤리경영의 중요성과 파급 효과에도 불구하고 사실 중견 이하의 기업들이 윤리경영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

